

나주비료·여천석화·광양제철 등 산업시설 유치 이끌어



호남고속도로 기공을 알린 1970년 4월 16일자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1면.

지역개발 63년

영남 위주 개발 “호남 푸대접” 비판
시·도민 염원 정부에 전달 창구역할
빛가람 혁신도시 탄생에도 큰 힘



광주일보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사업 시행 약속 28년만인 올해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됐다.



광양제철 1기 공사 준공소식을 현장에서 전한 1987년 5월 7일자 광주일보 1면.

1952년 지령 1호를 시작하며 광주일보는 '지역발전의 기수(旗手)'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식민지와 전쟁을 거처며 폐허가 돼 버린 지역 곳곳은 절망만이 가득했다. 전기·수도물 등 기본 시설은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 거리 곳곳에는 배급을 받으려는 길다란 줄이 늘어선 곳이었다. 도로는 비좁았고,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언제나 질퍽거렸다. 제대로 입지도 못한 빈민층들은 일거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만 했다.

당시 유일한 신문이자 언론이었던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이후 광주일보)의 사명이자 소명은 따라서 '지역발전'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창간 5주년을 맞은 1957년 4월 20일 광주일보는 '지방시대를 위한 언론'이라는 사실을 통해 경제적인 차원에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광주 시내 주요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시작된 1956년 광주일보는 나주비료공장 유치에 온 힘을 기울여 결국 같은 해 8월 13일 정부로부터 이를 얻어냈다. 6년 만인 1962년 12월 공장이 준공됐는데, 이후 호남에는 철도,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들이 잇따라 시작됐다.

우선 경전선 공사가 시작됐고(1964.4.28), 지금의 광주공항의 활주로가 개통됐으며(9.10), 목포와 부산을 잇는 직통열차가 다니기 시작했다(11.1). 고흥해정만 간척사업(1965.7.27)과 장흥 대대 간척사업(1966.5.31)이 준공되면서 전남 해안의 모습이 바뀌었다.

1966년 11월 21일 광주~서울 특급 백마호가 첫선을 보였고, 11월 25일에는 광주~송정 도로확장공사, 12월 16일에는 지금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 '아시아자동차 및 광주공업단지' 기공식이 각각 열렸다.

광주일보는 이러한 소식을 거의 유일하게 시민들에게 전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창구였다.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광주일보는 '호남 푸대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그 시발점은 1966년 3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었다. 3월 20일자 '전남 푸대접,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비 등 전연 배정 없어, 권기대회 등 강력한 대책의 소리'를 제목으로 1면 특기사를 내놓으며 영남 위주의 경제 개발과 지원을 정면으로 다뤘다. 이후 정부에 호남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압박하면서, 호남선 복선화 착공(1969.10.8), 호남고속도로 기공(1970.4.15) 등을 이끌어냈다.

경부선,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10년 이상 뒤졌지만, 뒤늦게나마 시민들의 염원이 여과없이 전달됐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

1970년 4월 16일자 광주일보 1면은 '아폴로13 달 착륙 포기 귀환중'이라는 특기사와 함께 사이드 기사로 4월 15일 오전 11시 20분 호남고속도로 기공해 제1차로 전주~대전 구간에 72억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 옆에는 3단 기사로 순천~전주 구간은 1971년 착공된다고 당시 건설부장관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금은 다소 촘촘하지만 그래픽으로 지도까지 첨부하고 기공식 사진에는 이날 발표 버튼을 누른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 사진까지 들어가 있었다.

영남에 비해 투자 규모는 턱없이 작았지만, 1970~80년대에는 산업시설들이 하나둘 갖춰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먼저 1976년 11월 10일자 광주일보 1면은 '여천 석유화학 12개월공장 합동기공식, 공단현장서 장예준 상공부장관 내외 귀빈 200여 명 참석 울산 콤포비나이트와 별도로 건설, 8억6000만불 투입 79년 완공, 완공되면 동양 굴지의 석유화학기지'라는 제목으로 기공식 사진과 각 공장 별 생산능력표를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또 1987년 5월 7일자 광주일보 1면은 '광양제철 1기 공사 준공, 1조6400억 투입, 조강(粗鋼) 연산 270만t, 타산업에의 생산유발, 국제수지 개선 등 호남의 획기적인 발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제목으로 한 현장기사로 채웠다.

1981년 2월 13일 호남~충남 간 서해안고속도로(4차선)를 건설한다는 정부 발표 소식, 10월 16일에는 지금의 88고속도로인 동서고속도로(광주~대구, 175km)의 공사 시작 소식을 각각 실었다.

1968년 시작된 호남선 복선화는 착공된지 36년 만인 2004년 비로소 현실이 됐다. 1989년 11월 3일 대불산단 착공, 1990년 11월 2일 광주 첨단산단 조성 발표 등을 광주일보는 기사화하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

2002년 4월 19일자 창사 50주년의 광주일보는 50대 지역 의제를 선정했는데, 경제분야 10대 의제로는 ▲지역산업 특화 ▲토착기업 보호 육성 ▲지역 대표브랜드 확보 ▲경제특구 지정 ▲부품소재사업 육성 ▲도심 공동화 방지 ▲지방금융 활성화 ▲농업의 벤처·첨단화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 ▲외자·대기업 유치 등이 꼽혔다. 이들 의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1990년대 이후 광주·전남의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도시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순환형인 2호선 건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광주는 지난 2004년 도시철도 1호선 1구간을 개통했다.

광주일보는 광주시가 지난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결정했으나 도시미관 저해, 소음, 설치 후 변경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제시해 이를 백지화시키기도 했다(2011년 4월 20일자).

광주일보는 지난 2005년 11월 22일자 사설 '공약(空約) 18년 호남고속철'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사업 시행을 약속한 지 18년째, 15조원의 거액이 필요한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고작 60억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10년 후인 지난 2015년 4월 2일 호남고속철 1단계(용산~광주송정) 개통 소식을 전했다.

광주·전남의 미래 주춧돌인 빛가람혁신도시의 탄생에도 광주일보는 일조했다.

당시 '제 밥그릇 쟁기'에 여념을 없었던 타 시·도와는 달리 광주·전남의 공동조성을 적극 지지했고, 이로 인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광주일보는 2005년 6월 9일자 1면에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 합친다 광주 인근 시·군에 초광역 혁신도시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그렇게 나주에 등지를 틀고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한데 이어 오는 2016년 하반기에는 16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매일 아침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청렴에 대한 굳은 의지와 약속,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희망입니다.